2026-01-19

HI FX Brief

돈로주의 리스크 VS 구두개입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구두개입 영향으로 원화와 엔화 추가 상승에는 제동

- 미국 소비자물가 둔화 등 달러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유지함. 연초 잇따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외 각종 강경 정책 기조가 안전자산 수요를 촉발시킴. 특히, 베네수엘라에 이은 이란 및 그린란드 사태 등이 달러 강세 심리를 강화시킴
- 유로화는 3주 연속 하락하면서 1.6달러선마저 무너짐.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유럽간 대립 양상이 유로화 약세 부담으로 이어짐
- 엔화 가치도 3주 연속 약세 기조를 이어갔지만 일본 정부의 구두개입 영향으로 주중 고점보다는 낮아진 수준에는 한주를 마감함
- 역외 위안화는 달러 강세와 위안화 강세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구두 발언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임
- 호주달러는 달러 강세 및 주요국 통화 약세 여파 등으로 약보합으로 마감함
- 달러-원 환율은 베선트 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가치에 대한 구두개입 발언으로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구두개입 효과만으로 원화 약세 심리를 꺾기에는 한계를 보임. 또한, 당초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1월 금통위 영향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도 환율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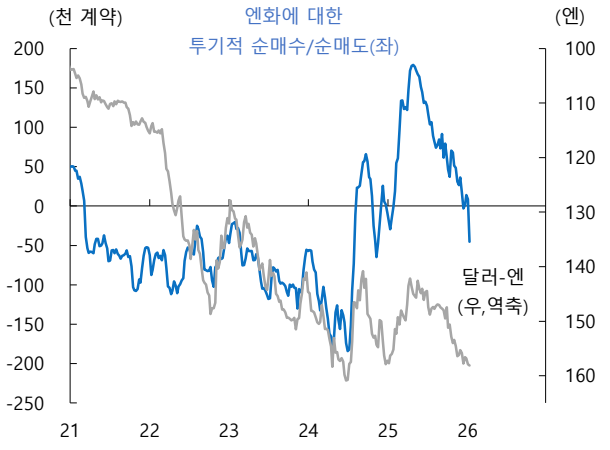
	1월 16일 종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99.4	0.26	1.09
유로-달러	1.160	-0.34	-1.26
달러-엔	158.1	0.15	0.90
역외 달러-위안	6.97	-0.12	-0.11
호주달러-달러	0.67	-0.06	0.15
달러-원	1,473.9	1.02	2.39

달러-원 환율 종가는 익일 2시 기준

금주: 돈로주의 리스크 VS 구두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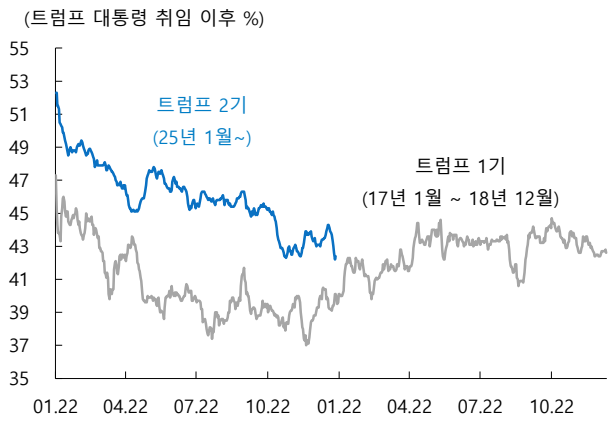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부터 10%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등 이란 사태와 함께 그린란드 사태 등이 소위 '돈로주의'발 달러 강세 압력으로 당분간 작용할 것임. 특히 유로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이 높아짐. 반면, 일본 정부의 구두 개입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어 엔화의 추가 강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달러화는 박스권 등락을 예상함
- 돈로주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가 랠리, 1월 금통위 충격 완화, 엔화 추가 강세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추가 개입 경계감 등으로 달러-원 환율은 눈치보기 장세를 예상함. 금주 달러-원 환율 밴드는 1,450~1,480원으로 전망함

그림1. 엔화 추가 약세를 기댄 엔화 투기적 포지션이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됨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돈로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